

※ 범위 분석 및 총평

1. 출제 영역별 문항 수

대단원 분류	문항수	출제 영역	
이론 문법	5	음운론	음운변동(1)
		형태론	품사(2)
		문장론	문장성분(1) 올바른 문장(1)
어문규정	4	표준 발음법	1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1) 맞춤법(1)
		표준어 규정	1
비문학	3	독해(2) 서술방식(1)	
문학	5	고전 문학	시조(1)
		현대 문학	문학사(1) 지식형 문제(2) 감상 이론(1)
어휘	3	한자	한자성어(1) 한자어(1)
		기타	속담(1)

2. 총평

이번 서울시 9급 시험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쉬웠다. 아마도 합격생들의 점수가 작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눈에 띄는 것은 문법 문제의 출제 비율이 높아져서 9문항이나 나온 것과 지식형 문제가 현대 소설에서 2문항이 나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편에 속하던 서울시 수준의 한자 문제가 이번에는 기초적인 부분에서 출제되어 쉬웠다. 시험에 나온 한자성어와 나이를 나타내는 말은 모두 수험생들이 기본 수준에서 암기했을 내용들이라 난도 자체가 높지 않았다. 또 무엇보다 독해 문항이 3개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지문의 길이도 짧고 난도 또한 낮아서 여러모로 수험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

문 1. 표준어끼리 묶인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물, 남사스럽다, 짹짹하다, 복숭아뼈
- ② 까탈스럽다, 결판지다, 주책이다, 걸음
- ③ 찰지다, 잎새, 꼬리연, 푸르르다
- ④ 개발새발, 이쁘다, 덩쿨, 마실

1. 정답: 4번

출제 범위: 어문규정 - 표준어 규정

난이도: 하

<정답 해설>

'개발새발(=괴발개발), 이쁘다(=예쁘다), 마실'은 표준어이지만, '덩쿨'은 '녕쿨(=덩굴)'의 비표준어이다.

문 2. 문장쓰기 어법이 가장 옳은 것은?

- ①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 ②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경영 혁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 ③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든다.
- ④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2. 정답: 1번

출제 범위: 올바른 문장

난이도: 하

<오답 해설>

- ②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이중피동이므로 '요구된다'로 고치거나, '필요하다'로 고쳐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경영 혁신이 요구된다(필요하다)."로 쓰는 것이 알맞다.
- ③ 문장의 주어인 '이것은'과 서술어 '(생각이) 든다'는 호응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호응 관계를 만들려면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혹은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도로 고치면 자연스럽다.
- ④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는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다.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을 거머쥘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정도로 고치면 자연스럽다.

문 3. 6.25전쟁과 가장 거리가 먼 소설은?

- ① 손창섭, 『비오는 날』 ② 박경리, 『토지』
- ③ 장용학, 『요한시집』 ④ 박완서, 『엄마의 말뚝』

3. 정답: 2번
 출제 범위: 현대문학 - 소설
 난이도: 상
 <정답 해설>
 박경리의 『토지』는 총 5부로 이루어진 대하소설이다. 1897년부터 1945년 광복을 맞을 때까지 부유한 지주인 최씨 집안의 4대에 걸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손창섭, 『비오는 날』
 6·25전쟁 중에 부산으로 피난을 온 동욱 남매의 황폐한 삶에 대해 우연히 다시 만난 친구 원구의 관점에서 암울하게 그린 작품이다.
 ③ 장용학, 『요한시집』
 6.25전쟁을 배경으로 하며, 괴뢰군으로 남쪽에 쳐들어와 포로가 된 주인공이 수용소의 철조망에 목을 매어 죽기까지를 서술하였다. 사건보다는 등장인물의 의식을 중심으로 서술한 실존주의적 소설이다.
 ④ 박완서, 『엄마의 말뚝』
 <엄마의 말뚝>은 1, 2, 3편의 연작 소설인데, 1편은 일제강점기에 남매를 데리고 서울에 자리 잡은 어머니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딸(서술자)의 이야기이며, 2편은 한국전쟁 때 아들을 잃게 된 어머니의 비극과 그 아픔을 공유한 딸(서술자)의 이야기이다. 3편은 2편 이후 10년 만에 발표되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화장을 원했던 엄마의 소망과는 달리 서울 근교의 공원묘지에 묻히게 되는 이야기이다.

문 4. '권력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속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달도 차면 기운다.
- ② 열흘 붉은 꽃이 없다.
- ③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
- ④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4. 정답: 3번
 출제 범위: 어휘 - 속담
 난이도: 하
 <정답 해설>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는 속담은 사람의 한평생에는 전환기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이다.
 <오답 해설>
 ① 달도 차면 기운다.

- ⑦ 세상의 온갖 것이 한번 번성하면 다시 쇠하기 마련이다.
- ⑧ 행운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열흘 붉은 꽃이 없다. = 봄꽃도 한때. 부귀영화란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한때가 지나면 그만임.
- ④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사람이 세도가 좋을 때는 늘 찾아오다가 그 처지가 보잘것없게 되면 찾아오지 아니함.

문 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이렇게 적은 수라면 거의 빈 대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백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과 미국의 해안 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인디언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 살인적인 질병의 1위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것은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등이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볼거리, 백일해, 페스트, 결핵, 황열병 등이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병원균이 보인 파괴력을 백인들이 직접 목격한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837년 대평원에서 가장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만단족 인디언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다. 만단족의 한 마을은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쇠』 중에서

- ① 유럽은 신세계였고, 아메리카는 구세계였다.
- ②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 ③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
- ④ 콜럼버스 이전에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

5. 정답: 2번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내용 일치 유형)
 난이도: 하
 <정답 해설>
 두 번째 단락의 첫 내용에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첫 번째 문단의 끝에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 인디언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문장을 참고하면, 유럽이 구세계였고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는 신세계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두 번째 단락의 뒷부분을 보면, 1837년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린 만단족의 한 마을은 몇 주 사이에 인구가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쳤다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무기 때문이 아니라 전염병(병원균) 때문이었다.

④ 첫 번째 단락의 뒷부분에서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인디언들이 약 2000만 명에 달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문 6. <보기>의 괄호에 알맞은 한자성어는?

<보기>

일을 하다 보면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의 수행 과정에서 부분적 잘못을 바로 잡으려다 정작 일 자체를 뒤엎어 버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흔히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 결점을 바로잡으려다 본질을 해치는 ()의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① 개과불린(改過不齊)
-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③ 교각살우(矯角殺牛)
-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6. 정답: 3번

출제 범위: 어문규정 - 표준어 규정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은,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에서 나온 ‘矯角殺牛(교각살우)’이다.

<오답 해설>

- ① 개과불린(改過不齊): 허물을 고치는 일에 인색하지 않음.
-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쫓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문 7. <보기>의 단어에 공통으로 적용된 음운 변동은?

<보기>

- 꽃내음[꼰내음]
- 바깥일[바깥닐]
- 학력[항녁]

- ① 중화
- ② 첨가
- ③ 비음화
- ④ 유음화

7. 정답: 3번

출제 범위: 음운론 - 음운의 변동

난이도: 중

<정답 해설>

- 꽃내음 ⇨ [꼰내음] ⇨ [꼰내음]
음절의 끝소리규칙 비음화
- 바깥일 ⇨ [바깥일] ⇨ [바깥닐] ⇨ [바깥닐]
음절의 끝소리규칙 ‘ㄴ’첨가 비음화
- 학력 ⇨ [항녁]
비음화

세 가지 모두 공통으로 ‘비음화’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 ① 중화: 서로 다른 음운이 특정한 조건에서 변별 기능을 잃고 구별되지 않는 현상인데, 음절의 끝에서 서로 다른 자음들이 모두 같은 소리의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도 여기에 해당한다. <보기>에서는 ‘꽃내음’과 ‘바깥일’이 중화이다.
- ② 첨가: ‘바깥일’에만 ‘ㄴ’ 첨가가 일어난다.
- ④ 유음화: 자음동화가 일어나서 앞뒤 자음이 모두 유음인 [ㄹㄹ]로 발음되는 경우인데,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문 8. 밑줄 친 단어의 품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의존명사>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조사>
- ② 오늘은 바람이 아니 분다. <부사>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감탄사>
- ③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명사>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 ④ 그는 이지적이다. <명사>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관형사>

8. 정답: 3번

출제 범위: 형태론 - 품사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백을 안다’에서 ‘백’은 수를 나타내면서 조사 ‘을’과 결합하였으므로 수사이고, ‘백 말을 한다’에서 ‘백’은 수를 나타내면서 명사 ‘말’을 수식하므로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 ① 용언의 관형형 ‘참을’의 수식을 받는 ‘만큼’은 의존명사이고, 명사 ‘사람’과 결합한 ‘만큼’은 조사이다.
- ② 서술어 ‘분다’에 부정의 의미를 더하여 수식하는 ‘아니’는 부사이고, 놀람이나 감탄 혹은 의아함 등을 나타내는 ‘아니’는 감탄사이다.
- ④ 서술격 조사 ‘이다’는 체언과만 결합하므로 ‘이지적이다’의 ‘이지적’은 명사이며, 명사 ‘인간’을 수식하는 ‘이지적’은 관형사이다.

문 9. 1960년대 한국 문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후 문학의 한계에 대한 극복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 ② 4.19혁명의 영향으로 현실비판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 ③ 참여문학과 순수문학 진영 간의 논쟁이 발생하였다.
- ④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9. 정답: 4번

출제 범위: 현대 문학 - 문학사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 것은 1970~80년대 문단의 특징이다. ‘민족문학’은 1920년대부터 그 흐름이 시작되었으나, 해방 직후에 수면 위로 떠올라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족문학의 논의에서 더 나아간 것이 민중문학이다.

문 10.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발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손 자: 할아버지. 여기 있는 ㉠발을 우리가 다 매야 해요?
 할아버지: 응. 이 ㉡발만 매면 돼.
 손 자: 이 ㉢발 모두요?
 할아버지: 왜? ㉣발이 너무 넓으니?

- ① ㉠: [바슬]
- ② ㉡: [반만]
- ③ ㉢: [받]
- ④ ㉣: [바치]

10. 정답: 1번

출제 범위: 어문 규정 - 표준발음법

난이도: 하

<정답 해설>

㉠ 발음은 앞 음절의 받침이 뒤에 이어지는 형식형태소 ‘을’의 앞자리로 연음되어 [바틀]이 된다.

<오답 해설>

- ② ㉡: 발만 ⇨ [반만](음절의 끝소리 규칙) ⇨ [반만](비음화)
- ③ ㉢: 받 ⇨ [반](음절의 끝소리 규칙)
- ④ ㉣: 발이 ⇨ [바치](구개음화)

문 11. <보기>의 비판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폴 매카트니는 도축장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식육 생산의 실상을 안다면 계속해서 동물을 먹을 수 없으리라고 그는 믿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서는 우리도 진실을 알고 있다. 식육 생산이 깔끔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싶지 않다. 고기가 동물에게서 나오는 줄은 알지만 동물이 고기가 되기까지의 단계들에 대해서는 짚어 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물을 먹으면서 그 행위가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조차 생각하려 들지 않는 수가 많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인식하지만 동시에 다른 수준에서는 의식을 못하는 일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게 바로 폭력적 이데올로기다.

- ① 채식주의자
- ② 식육 생산의 실상
- ③ 동물을 먹는 행위
- ④ 폭력적 이데올로기

11. 정답: 1번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전체적으로는 ‘폭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서술인데, 폭력적 이데올로기의 사례로 ‘식육 생산’이나 ‘동물을 먹는 행위’ 등을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비판대상이 아닌 것은 ‘채식주의자’이다.

문 12. 나이와 한자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62세-화갑(華甲) ② 77세-희수(喜壽)
- ③ 88세-백수(白壽) ④ 99세-미수(米壽)

12. 정답: 2번

출제 범위: 어휘 - 한자어

난이도: 중

<정답 해설>

‘희수(喜壽)’는 오래 살아서 기쁘다는 의미로 ‘喜壽’라고 하기도 하고, ‘喜 기쁨(희)’를 ‘七 일곱(칠)’로도 썼기 때문에 77세라고 하기도 한다.

<오답 해설>

- ① 62세를 가리키는 한자어는 ‘進甲(진갑)’이며, ‘화갑(華甲)’은 61세를 가리킨다. 61세를 가리키는 말로는 華甲(화갑) 이외에도 ‘還甲(환갑), 還曆(환력), 回甲(회갑), 望七(망칠)’ 등이 있다.
- ③ 88세를 가리키는 말은 ‘米壽(미수)’이며, ‘백수(白壽)’는 99세이다.
- ④ 99세는 ‘白壽(백수)’, ‘미수(米壽)’는 88세

문 14.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그곳에서 갓은 고생을 다 겪었다.
- ②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 ③ 인천으로 갔다. 그리고 배를 탔다.
- ④ 아기가 방글방글 웃는다.

14. 정답: 1번

출제 범위: 형태론 - 품사

난이도: 중

<정답 해설>

‘갓은’은 명사 ‘고생’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 ② 주어진 문장에서 ‘바로’는 뒤에 이어지는 대명사(체언) ‘이것’을 수식한다. 보통은 체언을 수식하는 것이 관형사이지만, ‘바로’는 부사이면서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예외의 단어이다.
- ③ 우리말의 접속어들은 대부분 부사이다. ‘그리고’도 접속부사이다.
- ④ ‘방글방글’은 동사 ‘웃는다’를 수식하는 (상징)부사이다.

문 13. 맞춤법 표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이렇게 하면 되?
- ② 이번에는 꼭 합격할께요.
- ③ 서로 도와고 사는 게 좋다.
- ④ 그 사람은 제가 잘 압니다.

13. 정답: 4번

출제 범위: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난이도: 하

<오답 해설>

- ① ‘되?’는 어간만 표기한 형태이며, ‘되어’의 준말은 ‘돼?’로 표기해야 어법에 맞는 형태가 된다.
- ② ‘합격할께요’의 어미 ‘-르께’는 발음만 된소리로 하며 표기할 때는 예사소리로 적어 ‘합격할게요’로 써야 한다.
- ③ ‘도와고’는 잘못된 형태이며 ‘돕다’의 활용형은 ‘돕고’이다.

문 15.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창조적 독해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
- ② 사소한 오해로 철수가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다.
- ③ 아는 체하는 걸 보니 공부 깨나 했나 보다.
- ④ 동해로 가는김에 평창에도 들렀다 가자.

15. 정답: 2번

출제 범위: 어문규정 - 한글맞춤법

난이도: 중

<오답 해설>

- ① 활용될 수 밖에 → 활용될√수밖에
의존명사 ‘수’ 뒤에 이어지는 ‘밖에’는 조사이므로 ‘수밖에’는 무조건 붙여 쓴다.
- ③ 공부 깨나 → 공부깨나
‘깨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④ 가는김에 → 가는√김에
어떤 일의 기회나 계기를 뜻하는 ‘김’은 의존명사이므로 앞 말과 띄어 쓴다.

문 16. <보기>에 나타난 작품 감상의 관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나는 지금도 이광수의 『무정』 작품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 특히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 이형식이 “웁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나요?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오라고, 지식을 얻어 오라고, 문명을 얻어 오라고 …… 그리해서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 달라고 ……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라고 부르짖는 부분에 가면 금방 내 가슴도 울렁거리려 나도 모르게 “네, 네, 네”라고 대답하고 싶단 말이야. 이 작품은 이 소설이 나왔던 1910년대 독자들의 가슴만이 아니라 아직 강대국에 싸여 있는 21세기 우리 시대 독자들에게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 ① 반영론적 관점 ② 효용론적 관점
- ③ 표현론적 관점 ④ 객관론적 관점

16. 정답: 2번

출제 범위: 문학 - 이론(감상 관점)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나’는 『무정』을 읽고 얻은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영향이므로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반영론적 관점: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관점
- ③ 표현론적 관점: 작가의 삶이나 가치관, 특성 등을 작품의 내용과 연관시켜 감상하는 관점
- ④ 객관론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과 유사하며, 작품 자체의 언어나 구조의 특성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관점

문 17. ‘본용언 + 보조 용언’ 구성이 아닌 것은?

- ① 영수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
- ②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한다.
- ③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어는 본다.
- ④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 간다.

17. 정답: 1번

출제 범위: 문장론 - 문장성분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는 ‘줍다’와 ‘버리다’가 각각 사전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모두 본용언이다.

<오답 해설>

- ② ‘아는’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해석되는 본용언이며, ‘척한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다.
- ③ ‘먹어’는 사전상의 의미 그대로 해석되는 본용언이며, ‘본다’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다.
- ④ ‘알아’는 일반적인 의미 그대로 해석되는 본용언이며, ‘간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다.

문 1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화랑도(花郎道)란, 신라 때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닦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화랑도(花郎徒)라 한다. 그 사회의 중심인물이 되기 위하여 마음과 몸을 단련하고,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범을 익히며,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처할 때 싸움터에서 목숨을 바치려는 기풍은 고구려나 백제에도 있었지만, 특히 신라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변태섭, 『화랑도』 중에서

- ① 용어 정의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자신의 체험담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반론을 위한 전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통계적 사실이나 사례 제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18. 정답: 1번

출제 범위: 비문학 - 서술 방식

난이도: 하

<정답 해설>

‘화랑도(花郎道)’와 ‘화랑도(花郎徒)’의 의미를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문 19. <보기>의 시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노라 ㉠三角山아 다시 보자 ㉡漢江水야
㉢故國山川을 찌느고자 허랴마는
時節이 하 ㉣殊常흐니 올동 말동 허여라
- 김상헌

- ① ㉠의 다른 명칭은 ‘인왕산’이다.
- ② ㉡은 여전히 사용하는 명칭이다.
- ③ ㉢의 당시 국호는 ‘조선’이다.
- ④ ㉣은 병자호란 직후의 상황을 뜻한다.

19. 정답: 1번

출제 범위: 고전 문학 - 시조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주어진 시조는 병자호란 때 주전론을 주장했던 김상헌이 소현세자 등과 함께 청나라로 끌려가면서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청나라로 끌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장한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 ‘三角山(삼각산)’은 북한산의 다른 이름인데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의 세 봉우리가 있다고 해서 얻은 이름이다.

<오답 해설>

- ㉡ ㉠ ‘漢江水(한강수)’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맞다.
- ㉢ ㉡ ‘故國山川(고국산천)’은 화자인 김상헌의 고국이므로 당시 국호가 ‘조선’이 맞다.
- ㉣ ㉢ ‘殊常호니(수상하니)’는 보통과 달리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병자호란 직후의 상황을 뜻하는 것이 맞다.

20. 정답: 4번

출제 범위: 현대 문학 - 소설

난이도: 상

<정답 해설>

이 문제는 서울시의 전형적 유형인 지식형 문제인데, 소설의 내용과 정보를 알아야 답을 고를 수 있다.

제시된 글은 김승옥의 <무진기행> 마지막 부분이다. 주인공은 일주일간 서울을 떠나 고향인 무진에 머물게 되면서 중학교 음악 선생 하인숙과 사랑에 빠지는데, 결국 서울에서 아내가 보낸 전보를 받고는 하인숙에게 쓴 편지를 찢어 버리고 말없이 서울로 돌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장면이다. 여기서의 ‘부끄러움’은 ‘무진’이라는 공간에서 잠시나마 찾았던 인간적 순수함을 버리고 다시 ‘서울’로 되돌아가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그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문 20. <보기>는 어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괄호 안에 들어 갈 소설 속 지명은?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찢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 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바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렵곳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듯이 당신을 햇볕 속으로 끌어 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을/를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다시 나는 그 편지를 읽어 봤다. 또 한 번 읽어 봤다. 그리고 찢어 버렸다. 덜컥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 앉아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씌어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 ① 삼포 ② 서울 ③ 거제 ④ 무진